

오순절 후 아홉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9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8월 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 | | |
|-----------------------------|---------------------------|-----|
| *입례 찬양 Opening Hymn |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 다같이 |
|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 | 인도자 |
| *찬 송 Hymn | 16장 “내 주는 살아 계시고” (새 170) | 인도자 |
|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 31 번 시편 (Psalm) 142 편 | 다같이 |
|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 | 다같이 |
|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 | 인도자 |
| *송 영 Gloria Patri | 555 장 “세번 아멘” | 다같이 |
|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 | 다같이 |

| | | |
|----------------------------|---|--------|
|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 | 김재우 장로 |
|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 히브리어(Hebrews) 11:7-10 | 조상희 집사 |
| 설 교 Sermon | “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게 합니다 ” (Faith Looks Forward to God’s Economy) | 김일선 목사 |
|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 | 다같이 |
| 봉 헌 Offerings | (특송: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 다같이 |
| *송 영 Doxology |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 다같이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 | 다같이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 | 인도자 |
| *찬 송 Hymn | 4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310) | 다같이 |
| *축 도 Benediction | | 김일선 목사 |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참된 화평과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이웃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었던

우리의 그릇된 삶과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12: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한글개역 히11:10)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NIV Hebrews 11:10)

| |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 | | | | | |
|----|----------------------------------|------------|------------|------------|------------|------------|------------|
| 날짜 | 8/2 (주일) | 8/3 (월) | 8/4 (화) | 8/5 (수) | 8/6 (목) | 8/7 (금) | 8/8 (토) |
| 본문 | 삿17 | 삿18 | 삿19 | 삿20 | 삿21 | 룻1 | 룻2 |
| | 행21 | 행22 | 행23 | 행24 | 행25 | 행26 | 행27 |
| | 렘30,31 | 렘32 | 렘33 | 렘34 | 렘35 | 렘36,37 | 렘38 |
| | 막16 | 시1,2 | 시3,4 | 시5,6 | 시7,8 | 시9 | 시10 |

| 수/요/ 성/경/공/부 | 토/요/ 새/벽/기/도/회 |
|------------------------|-------------------------------|
| 수요 성경공부 (8/5수 오후7:30) | “그백성과그땅을 네손에 붙였나니”(민21:21-35) |
| 토요 새벽기도회 (8/8토 오전6:30) | “구원은 여호와께” (시 31:8) |

지난 주일(7/26) 말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히 11:4-6)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은 곧 **순례자적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두 명의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들 (아벨,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히11:4), 이는 우리가 평소에 가인처럼 살면서, 갑자기 아벨과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기 때문이며, 2)둘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히11:5), 이는 평범한 일상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자원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이며, 3)셋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로서(히11:6),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께하심)와 하나님의 성품(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살전4:1)고 권면했고, 또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고후5:9)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2)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3)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